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며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9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18호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초의 진영, 日이모본… 소치作 아냐"

〈移模本〉

진영 전문가 김호석 동양화가
15일 초의 학술대회서 주장

현재까지 조선 후기 문인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의 작품으로 알려진 초의 선사(1786~1866)의 원본 진영이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이모본(移模本, 원본을 두고 베껴 그리는 것으로 원본과 똑같이 그리는 모사와는 다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시대 전통 진영 기법을 연구하는 동양화가 김호석 화백은 10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원본으로 알려진 초의 선사 진영은 1925년 전후로 일본인 화가나 일본식 채색화법을 익힌 사람에 의해 새롭게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본 초의 진영은 '백묘 · 무채'

김 화백에 따르면 초의 선사 진영 원본에 대한 기술은 남아 있다. 초의 선사의 다맥(茶脈)을 계승한 응송 스님은 〈동다정통고〉에서 초의 진영에 대해 "소치 허련은 초의 선사의 진영을 그렸다. 초의 진영은 무채(無彩) · 백묘(白描)법으로 그렸으며, 그가 그린 추사의 초상화와 함께 가작(佳作)에 속한다"며 "하지만 이 진영은 일제 압정기에 해남서장이었던 일본인 심석(心石)이 초의의 증법손 김천오에게서 탈취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인이 탈취했던 소치의 원본 초의 진영은 채색이 되지 않고 선으로만 표현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 대해 찬(讚)한 진영의 '화상찬' 역시 오류가 많아 이모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 화백은 신헌이 저술한 〈위당집〉권13에 담긴 '초의선사화상찬'의 원문과 아모레퍼시픽 박물관 소장 진영의 '초의대선사영찬'을 비교한 결과 진영의 화상찬에서 적지 않은 첨가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초의 선사의 입적 세납은 80세이지만 진영의 화상찬에서는 84세로 기술돼 있다"면서 "이 같이 원본과 달리 진영의 화상찬에는 글자의 탈락과 오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자리에 배석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은 "진영에는 글을 쓴 사람으로 '유경도인훈 찬'으로 돼 있다"며 "초의의 제자 중 상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낙관을 신헌의 호인 '금당'으로 찍을 이유가 없다. 이것도 이모본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기물 · 법구 · 복식 모두 '왜색'

김 화백은 "진영에 배치된 기물과 법구, 복식도 동시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갑의 경우 문집의 비례가 맞지 않고, 제책 순서도 오류가 있으며, 찻주전자는 조선이 아닌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족자 표구도 일본식으로 제작됐다.

김 화백은 "포갑의 형식에서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 문집 비례도 맞지 않다. 당대 문인화가였던 소치의 작품이라면 이런 세세함을 놓칠 수 없다"며 "이처럼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전달돼 달리 해석되는 게 이모본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의 선사가 진영에 지니고 있는 법구는 금강저로 주로 밀교 계통에서 사용하는 법구이다. 선사로서 당대 이름을 날렸던 초의 선사가 밀교의 법구를 지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화백은 "조선시대 진영의 핵심은 '전신사조(傳神寫照)'에 있다"며 "선사인 초의를 표현하는 법구로 금강저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초의 선사의 앉아 있는 좌대와 방석, 복식도 일본풍으로 재해석됐다. 김 화백은 "좌대는 자를 대고 그은 계선 기법이 사용됐다. 이런 좌대는 일본 진영에서 나타난다"면서 "방석도 일본식 문양이 장식된 천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역사 인식 바로잡아야

김 화백의 이런 주장이 있기까지 학계와 대중은 아모레퍼시픽박물관 소장본을 초의 진영의 원본처럼 여겼다. 초의 선사 열반 150주년을 맞아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에도 해당 진영은 전시 중이다.

김 화백은 "일본식으로 해석된 그림을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소치의 작품으로, 초의 진영의 원본으로 알고 있던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초의 선사의 진영을 추증하며 재현하기 위해서는 일본 방식을 배제하고 조선 방식대로 회복해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아직까지 초의 선사 진영에 대한 연구 논문은 단 한편도 없다"면서 "열반 150주년을 맞아 초의 선사 진영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동국 서예박물관 서예부장은 "김 화백의 연구는 현 진영에 대한 통설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 반박하고 이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역사적 사실 관계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화백의 이 같은 주장은 10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예박물관 4층서 열리는 초의 선사 열반 150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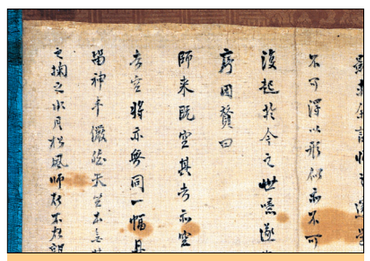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아모레퍼시픽 박물관의 초의 선사 진영. 초의 선사를 그린 진영 원본으로 소치 허련이 그린 것이 통설처럼 전해졌다.

화상찬, 원본과 달리 오탈자 많고
80세 입적한 초의를 84세로 적어
진영 기물도 조선시대 물품 아냐
스님 복식·법구, 전통방식 달라
족자도 일본풍… 원본될 수 없어
"제대로 된 초의 진영 연구 全無"

초의선사 진영의 이모본인 결정적 증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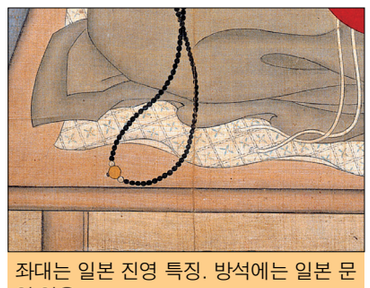
화상찬 오탈자 많고 표구도 일본식.



선사인 초의가 밀교의 법구인 금강저를 지니고 있다.



포갑의 문집 비례 안맞고, 찻주전자는 조선 것이 아니다.



좌대는 일본 진영 특징. 방석에는 일본 문양 있음.

"한중일 평화 우호 불교가 이어가자"

제19차 한중일불교도대회 성료… 공동 평화선언

한중일 불자들이 천년동안 이어온 한중일 동아시아 평화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동북아 불교교류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중일 세 나라 불교도 400여 명은 10월 12일 영보 설두사(雪竇寺) 용화광장에서 제19차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열고 공동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설두사는 중국 5대 10절 중 하나로 이 곳에 주석한 설두 선사의 공안선이 한국전통 수행인 간화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삼국 불교도들을 대표해 "현시대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하려는 경향에 따라 지역정세에 긴장이 더해지고 있다"며 "보살행의 마음가짐과 자아성찰의 수행이 우리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자비실천으로 사회와 국가를 넘어 불교인들이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내안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삼국이 비바람을 거치면서 함께 학술연구와 인재양성, 정보교환, 수행체험 등 깊은 교류를 하며 동북아 불교발전과 세계불교 번영을 이끌고 있다. 불법전승의 옛일을 거울 삼아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유대를 더욱 다져가자"고 다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따오츠(道慈) 스님은 "불교도들은 자신의 안락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고를 떠날 수 있도록 불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중일대회에서는 2017년 중국불교협회서 40명을 한국에 파견해 수행체험을 교류하고, 일본 또한 중국불교협회와 수행체험을 교류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또 20차 대회를 위한 예비회의를 2017년 3월 22~24일 제주도에서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자 중 불교 공용한자 808자를 확정하자는 제안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원철 스님은 불교적 문화유전자를 통한 동북아공동체 복원의 일환으로 3국 민간학자들이 새롭게 선정한 공용한자 808자 확산을 제안했다.

한중일 불자 400명 운집해
내년 한국서 수행교류 합의
포럼서 불교한자 제정 제안
3국 다도 최초 시연해 눈길

한편, 13일에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최초로 3국 다도교류회가 열렸다. 천동선사에서 열린 삼국 다도 교류회에서는 나라별로 30분씩 전통다도를 선보였다. 중국 측에서는 '차와 음악이 산속의 통합이 되어 울다'를 주제로 전통악기 연주 소리에 맞춰 다도 시연을 펼쳐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한국공연에서도 전국비구니차인회 소속 스님들과 조계사예차회 회원들이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불교 전통다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2일 설두사에서 진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사진 맨 앞)을 비롯한 삼국 대표 스님들이 헌향하고 있다.

